

4월중 일본의 표고버섯 해외시장 동향 및 전망

□ 임산물 수입동향

- 일본의 표고버섯 수입물량은 소비침체, 주 산지인 동북지방의 지진피해, 새로운 버섯 품종의 보급으로 인해 최근 감소 경향에 있으며 2015년 3월말 누계 기준 생표고는 전년대비 19.4%, 건표고는 9.7% 감소하였음
- 3월 당월 기준으로는 생표고의 수입액은 82백만엔, 건표고는 365백만엔으로 전년대비 각각 20.3%, 55.3% 감소하였음

<2015년 3월기준 수입실적>

(단위: 톤,천엔)

구 분	3월 당월			1-3월 누계		
	물량	금액	전년대비 (금액,%)	물량	금액	전년대비 (금액,%)
계	472	447,697	▲51.3	2,075	2,092,633	▲11.4
생표고	231	82,421	▲20.3	915	334,988	▲19.4
건표고	241	365,276	▲55.3	1,160	1,757,645	▲9.7

자료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생표고의 연도별 대일수입 실적을 보면, 2014년은 1,048백만엔으로 2012년 대비 금액기준 25%, 물량기준 44% 감소했으며, 건표고는 물량은 하락추세인 반면, 엔화약세에 따른 수입단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수입금액은 34% 증가함

<연도별 수입실적>

(단위 : 톤, 백만엔, %)

구 분	2012		2013		20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생표고	5,015	1,400	3,831	1,377	2,799	1,048
건표고	5,940	5,674	5,467	6,884	5,077	7,596
계	10,955	7,074	9,298	8,261	7,876	8,644

자료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국가별 수입동향

- 3월말 국가별 표고버섯 수입실적을 보면, 생표고는 중국산이 100%, 건표고는 99.9% 이상이며, 홍콩에서 소량 수입되었음
- 수입 표고버섯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중국산의 수입이 감소는 아래와 같음
 - 중국내 맥도널드 재료공급 공장의 위생문제가 일본내 큰 이슈화 됨에 따라 수요가 급감
 - 엔화약세로 중국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대일 수출을 기피
 - 2011년 동북지방 대지진 이후 방사능 등 안전성 문제로 취급이 중단되었던 표고버섯의 주산지인 동북지방의 표고버섯 유통재개

<2015.1~3월 국가별 수입실적>

(단위: 천엔)

품목 HS코드	'14.1~3	'15.1~3	증감 %	1위		2위		한국산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표고버섯 (생표고) 0709.59.020	415,640	334,988	▲19.4	중국	334,988	-	-	-
표고버섯 (건표고) 0712.39.010	1,946,496	1,757,645	▲9.7	중국	1,757,645	홍콩	245	-

자료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표고버섯 국별 수입실적(2014년)>

(단위: 톤, 백만엔)

구분	전체		중국		한국		홍콩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생표고	2,799	1,048	2,798	1,047	0.7	1	-	-
건표고	5,077	7,596	5,077	7,596	0.2	0.2	0.06	0.4

자료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생산 및 가격 동향

- 생산동향
 - 일본의 표고버섯 생산량은 생표고 기준으로 1984년 191천톤을 정점으로 감소를 계속하다가 최근은 80천톤 규모를 밀돌고 있음

- 2011년 주산지인 동북지방의 대지진 및 방사능 피해로 인한 수요 및 재배 감소로 인해 생산량도 감소 경향임
- 재배방법은 기존의 원목재배에서 2000년대부터 균상재배가 급속히 증가하여 '13년에는 균상재배 표고버섯이 전체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 건표고는 원목재배로 생산되기 되어 기온, 강수 등에 기상조건에 많은 영향을 많으며 2013년 생산량은 3,498톤으로 전년대비 5.6% 감소하였으며 주산지는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에히메현 등임

<연도별 표고버섯 생산실적>

(단위 : 톤)

구 분	건표고	생표고			표고 계
		계	원목재배	균상재배	
2009	3,597	75,016	13,651	61,365	78,613
2010	3,516	77,079	12,460	64,619	80,595
2011	3,696	71,254	10,735	60,519	74,950
2012	3,705	66,476	8,392	58,027	70,181
2013	3,498	67,760	7,671	60,089	71,258

자료 : 일본 임야청 통계

○ 도매가격

- 2015년 3월 도매가격은 918엔/kg으로 전년대비 8% 상승한 반면, 도매물량은 4% 감소함
- 건표고의 가격의 4월 입찰가격은 2011년 3월 발생한 동북지방 지진 및 방사능 피해 이후 4년만에 평균 4,000엔대/kg을 회복함
- * 전국 건표고 생산량의 반을 점유하는 오이타현에는 4월 입찰가격이 1kg당 4,334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43% 상승함
- 연도별 도매물량을 보면 동북 대지진 발생전인 2010년 47,097톤에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은 37,149톤으로 2010년 대비 약21% 감소함

<생표고 월별 도매가격 동향>

(단위 : 톤, 엔/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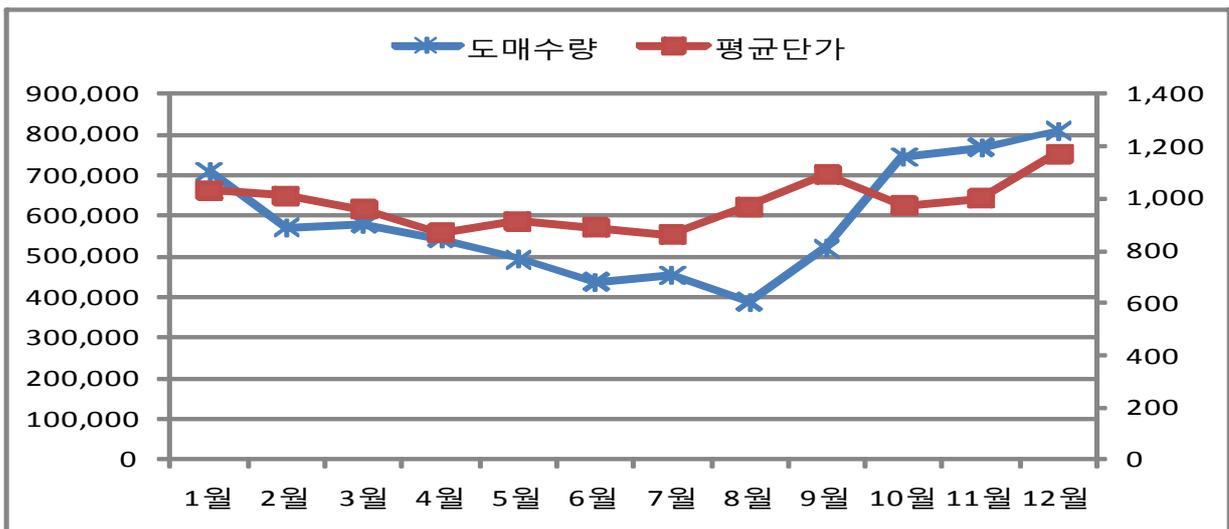
구 분	도매수량	도매가격	전년대비 도매수량	전년대비 도매가격	전월대비 도매수량	전월대비 도매가격
2015.3월	3,120	918	96	108	105	90
2015.2월	2,962	1,016	97	109	91	91
2015.1월	3,272	1,115	96	113	79	94
2014년	37,149	911	95	105		
2013년	39,067	870	94	105		
2012년	41,716	831	96	99		
2011년	44,203	839	94	99		
2010년	47,097	845	102	95		
2009년	46,072	906	107	91		
2008년	43,208	1,001	96	106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 동경도 도매시장의 2014년 월별 생표고 도매가격을 보면 9월, 11월이 가장 높으며 4월~7월이 가격이 낮게 형성됨

<동경도 도매시장 2014년 월별 생표고 도매가 추이>

(단위 : 엔/kg)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 소매가격

- 도쿄 시내 슈퍼마켓의 생표고버섯 판매상황을 보면 일본산만 판매되고 있으며 생표고 균상재배품이 246엔, 원목재배품이 298엔임

- 건표고는 포장규격별 품질등급에 따라 가격대가 다양하며, 일본산 동고 60g이 698엔에 판매되고 있으며, 중국산은 판매되고 있지 않음

<대형유통업체 S수퍼마켓 판매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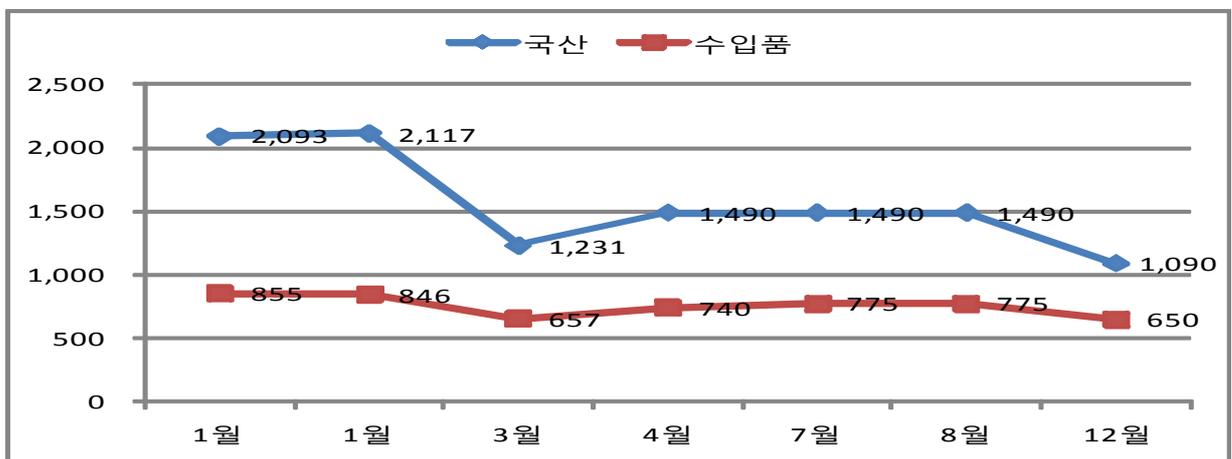
			
생표고(균상)	생표고(원목)	건표고(동고)	건표고(동고)
일본산 1팩 246엔(세금포함265엔)	일본산 1팩 298엔(세금포함321엔)	일본산 60g 698엔(세금포함753엔)	일본산 40g 522엔(세금포함564엔)

* 중국산 생표고 및 건표고 판매상품 없음

- 표고버섯의 연간 소매가격을 보면 2월이 2,117엔/kg으로 가장 높았으며, 12월이 1,090엔/kg으로 가장 낮음
- 수입산 표고버섯의 가격추이는 일본산과 비슷한 추세이며 일본산과의 가격차는 약 40% 저렴함

<동경도 도매시장 2014년 월별 생표고 도매가 추이>

(단위 : 엔/kg)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 소비 동향

○ 일본 생산 표고

- 표고버섯 주 산지였던 동북지방의 방사능 피해로 인한 구매기피와 새송이 등 경쟁 버섯제품의 보급으로 소비 감소추세임
- 맛벌이 및 싱글족의 증가로 식생활 패턴이 간편조리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표고버섯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동북지방의 표고버섯 유통이 재개되고 지자체별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함에 따라 다소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과육이 두껍고 식감이 좋은 원목재배 및 지역브랜드 부착 표고버섯의 상품 소비가 증가 추세

○ 대외 수입 표고

- 수입산 표고버섯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에 대한 안전성 이미지 하락으로 수요가 지속 감소 추세이며, 업무용 보다는 소매점에서의 판매하락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일본산과 중국산과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도 판매가 안되고 있음

□ 향후 시장 전망

○ 이슈현안

- 건표고버섯 가격회복 ('15.5.9, 일본농업신문 발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건표고의 가격이 회복하고 있다.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한 풍평피해가 전국산지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금년에 들어서 서서히 가격이 올라가 4월 각지의 입찰회에서 사고이후 처음으로 1kg 당 4,000엔을 넘었다. 상승의 큰 요인은 공급감소이다. 출하제한 및 판매부진에 의한 폐업, 그리고 작황의 부진했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는 원목재배 버섯류가 큰 영향을 받았다. 생표고는 균상재배 점유율이 높으나 국내 생산 건표고는 거의 전량이 원목재배를 원료로 한다. 주 산지인 동북 및 북관동지역에서 방사능물질에 의한 오염, 출하규제와 같은 실제피해가 발생했다. 그 뿐만 아니라 건표고 전반에 걸쳐 풍평피해로 소비가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다.

- 대만 일본산 수입농산물 규제 강화(5.15부터)

*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치바 등 5개현의 식품수입금지 조치

대만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지자체별 산지증명서 첨부 의무화했으며, 다음의 제품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 증명서 제출해야 함

- (1) 미야기, 이와테, 도쿄, 에히메의 수산물
- (2) 도쿄, 시즈오카, 아이치, 오사타의 차류
- (3)미야기, 사이타마, 도쿄의 유제품

- 최근 들기름 인기 급상승 (세부자료는 붙임 참조)

일본 TV 인기프로그램에서 '14년 12월, '15년 2월, 3월 등 총 3회에 걸쳐 기능성 오일로써 들기름의 효능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주성분인 오메가-3가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면서 소비가 급증하게 됨

○ 향후전망

- 수입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농식품의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수입 표고버섯의 수요는 계속 감소추세 전망
- 일본산 표고버섯은 방사능 피해로 출하에 어려움을 겪었던 동북지방의 표고버섯이 본격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고품질의 원목표고버섯을 중심으로 서서히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